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6. 28.(수)

국내 바이오항공유, 바이오선박유 상용화 첫걸음, 민·관이 함께 내딛다

- 국제 운항 항공기, 선박 대상 바이오연료 실증연구 추진 -
- 실증연구 결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내 상용화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, 산업통상자원부, 해양수산부는 6월 28일(수) 민·관 합동 「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」(이하 ‘얼라이언스’) 제3차 전체 회의에서 바이오항공유*, 바이오선박유** 실증연구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.

* 바이오항공유 : 재생·폐기물 원료로 생산한 항공유로, 지속가능항공유(SAF, Sustainable Aviation Fuel)로도 불림

** 바이오선박유 : 바이오중유, 바이오디젤 등 기존 선박유(벙커C유, 경유)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

○ 정부는 항공과 해운 부문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,

○ 지난해 11월부터 업계와 함께 얼라이언스*를 구성하여 실증연구 추진 방안을 논의해 왔다.

*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 : 정부(산업, 국토, 해수부), 기관(석유관리원, 에경연, 에기연, 에기평), 업계(바이오에너지, 정유, 항공, 해운, 조선업계 협.단체 및 주요기업)

□ 이번 3차 회의에서 추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, 올해 8월부터 국제 운항 항공기와 선박에 각 바이오항공유, 바이오선박유를 투입*하여 시범운항 하며, 신규 바이오연료의 품질과 성능평가, 제반 공급 인프라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.

* 투입대상연료 : (항공) 바이오항공유가 혼합된 항공유
(선박) 바이오중유·바이오디젤이 혼합된 선박유(벙커C유, 경유)

- 산업부는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규 바이오연료의 국내 상용화를 위한 법·제도 기반을 정비하고,
 - 3개 부처 공동으로 바이오연료의 원활한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.
-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“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바이오항공유, 바이오선박유가 국적 항공기 및 선박(추진엔진)에 투입되며, 관계부처, 수요기업, 바이오·정유업계 등이 공동으로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적,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대일 (044-203-5220)
		담당자	서기관	임미정 (044-203-5222)
	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	책임자	과 장	김완국 (044-201-4284)
		담당자	사무관	홍덕곤 (044-201-4291)
	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	책임자	과 장	이창용 (044-200-5830)
		담당자	사무관	임병준 (044-200-5834)

